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발진'

8 노동과세계 | © 승인 2008.09.02 14:14

##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이뤄낸다”...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 발족, 토론회 통해 광우병 불매운동 지역사례 제시

[사진1]

시민사회단체들이 소비자 불매운동을 통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명절인 추석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될 예정이다. 이에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을 본격화하며 2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가 발족됐다.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이미 국내에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불매운동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회의적인 의견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고 “국민네트워크가 적극적 활동을 벌여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 중 적어도 30%에서 많게는 90%까지 팔리지 않도록 만든다면, 미국이 먼저 나서서 스스로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사무처장은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 활동 궁극적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b>이명박 정권에 맞선 소비자들, 직접행동으로 거부하고 반대</b>

배옥병 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그동안 넉 달에 걸쳐 많은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미 굴욕적 줄속협상으로 국내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와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이제 소비자들이 나서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 처사에 대해 행동으로 거부하고 반대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배 공동대표는 “특히 우리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무방비로 미국산 쇠고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들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단위학교별로 수입산 먹거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차원에서는 정육점, 대형마트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팔지도, 사지도, 먹지도 않는 운동을 펼치고,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일상활동으로 안전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고' 3불운동</b>

오길성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은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낭독을 통해 “광우병 안전지대 전국네트워크 운동은 먼저 '안사고, 안팔고, 안먹는' 이른바 3불운동을 통해 사회적 기초를 축적해 나갈 것이며, 업체, 지자체 등과 3불운동 서약, 협약 등을 통해 사회적 규범화 될 것이고, 온 국민이 그 이행을 감시하는 운동을 통해 사회적 추진력을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소장은 또 “사회적 동력과 규범, 추진력을 갖는 유통저지, 불매운동은 한편으로는 일상으로 파고드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을 적극 막아내는 실효와 함께 전면 재협상을 향한 국민저항 정당성과 절박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우병 안전지대 국민네트워크는 ▲학교·보육시설·병원·직장·대형급식소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협약 선언을 진행하고 ▲대형 가공업체·외식업체 등이 사회적 선언을 진행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또 ▲도매업체들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유통중단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b>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유통저지·불매운동 주력</b>

이날 국민네트워크는 유통저지 불매운동 취지와 방도 등을 대중적으로 해설하고, 지역 사례를 통해 유통저지 불매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식 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안전한 쇠고기를 위한 수입조건, 가축위생검역에 관한 제안'(송기호 변호사), '불매운동 목표와 과제, 방도'(최석희 민주노동당 전 금천구위원회 위원장) 발제가 이뤄졌으며, 사례발표를 통해 이후 전개될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이 충분히 가능하며 이미 여러 성공사례가 있음을 제시했다.

사례발표에서는 △병원급식 광우병 위험 쇠고기 추방운동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단협 체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추진한 울산 명촌지역 광우병 청정지대 운동 △광주시민감시단 활동 △광우병 쇠고기 불매운동 충북사례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만들기 범시민 협의회 활동 △가공식품에서의 광우병 안전지대 만들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통 현황 조사 결과 △전국여성연대 '장바구니실천단' 활동 등이 소개됐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 국민적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광우병을 거부하고 몰아내겠다는 태세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